

한국형 병원정보시스템, 중동과 미국 거쳐 이번에는 일본 간다

- ▶ 이지케어텍, 일본 대학병원에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전 Fit & Gap 분석 계약
- ▶ 대한민국 의료IT 기업 최초, 일본 진출 성과

<2020-01-15> 이지케어텍이 국산 의료정보시스템의 일본 수출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대한민국 의료IT 서비스 대표기업 이지케어텍(대표이사 위원량)은 지난 14일 일본 성마리안나 대학병원(St. Marianna University Hospital)과 차세대 의료정보시스템 본 구축을 위한 Fit & Gap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Fit & Gap 프로젝트는 병원정보시스템(HIS) 구축에 앞서, 프로그램의 수정 사항 및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프로그램과 해당 병원의 각 부서별 프로세스 간의 차이점, 모듈 구성, 시스템 구축 방안, 기능 개선에 대한 전략적 방안을 도출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번 계약에 따라 이지케어텍은 해당 기간 동안 일본에 머무르며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연과 현지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2020년 상반기 본계약 이행을 통해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지케어텍은 일본시장 진출을 위해 약 1년 6개월 전부터 일본 병원과 접촉해 왔으며, 작년 4월부터 분당서울대학교 병원과 협력하여 한국형 병원정보시스템인 베스트케어2.0의 일본어 버전을 개발하는 등 일본 진출을 위해 준비해왔다. 본 프로젝트 계약까지 무난히 이어질 경우 이지케어텍은 국내 기업 최초로 국산 의료정보시스템을 일본에 수출함과 동시에 동아시아 의료IT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야마모토 성마리안나 대학병원 IT전략추진실장은 이번 계약과 관련하여 “베스트케어2.0 도입을 통해 의료질과 업무 생산성 향상, 교육 및 연구의 질적, 양적 향상에 대해 크게 기대하고 있다. 도입까지는 여러 과제가 남아 있지만 이지케어텍과 우리 병원이 협력하여 한 단계씩 착실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성마리안나 대학병원(병원장 기타가와 히로아키)은 일본 도쿄 근처 가와사키에 위치해 있으며, 1974년 설립된 병원으로, 31개 진료과와 1,208개의 병상수를 갖추고 있다. 도쿄와 요코하마에 분원을 두고 있으며, 작년 미국 시사저널 『뉴스위크』가 선정한 2019년도 일본 병원 순위 14위에 오르기도 했다.

14일 성마리안나 대학병원에서 개최된 킥오프 미팅에는 병원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는 의미로 서울대학교병원 김연수 원장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백용민 원장 등 병원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 병원 관계자들은 “본 계약이 단순한 전산 프로젝트가 아닌 양국의 대학병원 사이에 진료 및 연구 분야에서 향후 지속적인 협력 관계로 이어지도록 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지케어텍 위원량 대표이사는 “이번 계약은 당사가 일본 의료기관과 맺은 최초의 계약으로, 최근까지 경색 국면을 이어오고 있는 양국의 관계를 고려해봤을 때 매우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1년 넘게 이어진 고객 병원 대상의 시연, 실사 과정에서 주인의 의식으로 협조해 주신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향후 일본에 국산 의료정보시스템을 수출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대한민국 의료IT 산업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프로젝트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황희 분당서울대병원 최고정보책임자는 “베스트케어2.0이 2013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첫 선을 보인 후 중동과 미국으로의 수출 및 확산을 거쳐, 이제 일본이라는 선진 의료 시장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계약은 본 프로젝트로 이행하기 위한 사전 프로젝트 계약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병원과 이지케어텍 모두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다는 생각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대표적인 한국형 병원정보시스템인 베스트케어2.0은 2013년 분당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이화의료원, 동산의료원, 충남대병원 등 대형병원 위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병원 소프트웨어로는 최초로 분당서울대병원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2014년 사우디 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를 거쳐 2017년 미국으로 진출하는 등 지금까지 1000억원 이상의 수출을 달성하며 병원정보시스템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한편 이지케어텍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함께 할 현지 파트너를 물색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일본 내 현지법인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EMR시장은 한국보다 큰 약 3조원 규모로 향후 성공적인 일본 진출을 통해 사업적인 성장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일본 기업 및 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다양한 헬스케어 IT 사업 영역에서 시너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자료1]



▲ 이지케어텍과 일본 성마리안나 대학병원이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전 Fit & Gap 분석 계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성마리안나 대학병원 야마모토 IT전략추진실장, 아카시 이사장, 이지케어텍 위원량 대표이사, 분당서울대병원 황희 최고정보책임자

[사진자료2]



▲ 이지케어텍과 일본 성마리안나 대학병원이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전 Fit & Gap 분석 계약을 체결했다. 이지케어텍과 일본 성마리안나 대학병원 관계자들. 앞열 가운데 좌측부터 일본 성마리안나 대학병원 아카시 이사장, 이지케어텍 위원량 대표이사, 분당서울대병원 황희 최고정보책임자.